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의 날' 기념주간 산재보험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 법정기념일 지정 이후 두 번째 '추모주간' 운영...산재노동자 헌신 기려
- 국민 시각에서 제작된 숏폼 영상으로 '산재신청은 어렵다'는 편견 해소
- 박종길 이사장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로 산재 서비스 개선하고 국가 책임 강화할 것"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기념주간을 맞아 '산재신청 바로알기'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산재보험 신청 절차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6일 서울합동청사에서 시상식을 열고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작품을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영상 콘텐츠가 출품됐으며, 산재 신청 절차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산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공단은 이번 기념 주간을 통해 산재보험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추진했다.

이번 공모전은 '산재신청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고, 누구나 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들은 산재신청 절차를 국민의 시각에서 간결하게 전달해 제도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을 포함한 6개 팀에 총 5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이사장 상장이 수여됐다.

공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한 콘텐츠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필요한 이들이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시상식에서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라며, “이를 위해 산재보험 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산재보험 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필요한 때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상식은 수상작을 통해 산재보험 제도의 의미와 역할을 공유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담당 부서	업무상질병국 재해기준부	책임자	부 장	박상식 (052-704-7401)
		담당자	팀 장	한성현 (052-704-7402)

